

대부도에 들어설 (가칭)경기안산1교, 8월 첫삽 2028년도 개교목표

7월 대부도 주민간담회 외국인·내국인 학생친구 한국어·영어로 공동수업



과를 발표했다.

〈본지 5월12일자 1면 보도〉

조건부 통과 내용은 △지역주민 시설 개방 등에 따른 학생 안전 대책 △기숙사 위치 적정성 검토 △지자체(경기도, 안산시) 지원 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다.

향후 일정은 오는 7월,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투자 심사 시 조건부 사항을 보고하고 이어서 학교 운영 관련 대부도 주민을 중심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8월에는 학교 설립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하고 2028년 3월이나 9월 학교 설립이 목표다.

국제학교처럼 운영될 (가칭)경기안산1교는 교명을 정식으로 정하게 되는 설립 이전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학교명이다.

단원구 대부남동 산126번지 일대 ‘더 헤븐CC’ 건너편에 들어설 학교는 중·고등학교 통합 18학급 360명으로 중학교 9학급, 고등학교 9학급으로

학생은 학급당 20명이다.

학생은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 7:3 비율로 선발하고 1순위 안산관내 학생, 2순위 경기도 관내 학생, 3순위 전국 단위 학생으로 한다.

중요한 것은 학교가 들어서면 대부도 지역 학교와 연계 수업으로 국제교육벨트 사업이 운영된다는 것이며, 대부도 학생들의 실력향상과 함께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점이다.

대부도 지역 초등학교와 연계해 초·중·고 국제화 교육과정 연계 운영이 예정되어 있다.

대부도내 중·고등학교에도 교육과정 운영 모델 및 지역 맞춤 교육과정이 연계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국제학교와의 교육교류를 통한 연계 지원 운영도 가능하다.

교육과정은 기본 및 특색 교육과정을 통해 최소 3개 이상의 언어(한국어, 영어, 제2외국어 1개)를 구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기본 교육과정은 국어, 한국사는 한국어 수업으로 하고 그 외 모든 교과는 영어 수업을 기본으로 하되, 교사, 학생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이중언어 병행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민주당, 안산 제3선거구, 사진)은 “가칭 학교 이름이 경기안산국제학교, 다문화 대안학교 또는 경기안산1교일뿐이지 정식 학교명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울타리의 선거벽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벽보가 일제히 내 걸렸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울타리에도 선거벽보가 내 걸렸다. 선거벽도 훼손사례가 많은 안산이지만 이곳에 내걸린 선거벽보는 상태가 좋다. 6.3대선 사전투표일은 29일(목)과 30일(금) 양일간이다. 올해는 선거기간이 짧아 사전투표일에 주말이 없다. 착오가 없도록 하고 높은 투표참여를 기대해 본다.

김태창 기자

은 따로 정하게 되며 학교 운영은 국제학교처럼 하게 될 것”이라면서 “대부초·중·고와 연계 수업하고 기숙사는 물론 교원 숙소, 학부모들의 대부도 거주 등 대부도 교육은 물론 대부도 발전이 그만큼 앞당겨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대부도에 들어

설 학교는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외국 아이들이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는 시대로 바뀌는 것으로 외국학생과 한국학생이 서로 친구로 지내며 공동으로 수업하는 학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 반부패·청렴협의회 공식 출범... 청렴 도시 실현 박차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각 부서 대표로 구성

안산시는 20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각 부서 대표로 구성된 반부패·청렴협의회 ‘청렴한 아이(I*)’의 본격 운영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25년 안산시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에 따라 실천 중

심의 청렴 활동을 확산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청렴이 근본이 되는 청렴 안산을 목표로 ▲청렴의 일상화를 위한 홍보 강화 ▲소통하는 청렴으로 부패취약분야 개선 ▲시민으로의 청렴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방문해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그 결과 시화방조제 유지관리토로를 응급상황 발생시에 개방하기로 했고, 지난해 7월 이용방법 개선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다.

이제 2025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고 이용에 편리성과 신속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박해철 의원, 시화방조제 유지관리 도로 사용 1년

올해는 자동문으로 교체 관계기관과 적극협력하



시화방조제 유지관리 도로를 주말에 긴급한 경우 임시도로로 사용하게 된지 1년이 되

어가고 있다.

시화호 유지관리 도로는 시화호 방향에 건설된 것으로 시화방조제 하단부에 있는 시화호 작업도로다.

그동안 많은 국회의원이 대부동을 지역구로 두면서도 시화방조제 유지관리 도로 사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현 박해철(사진) 의원은 그 문제

를 해결한 유일한 의원이다.

박 의원은 주말 등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가 되면 시화방조제 부근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이 발생 시 환자이송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잊지 않았다.

당선 직후인 지난해 5월 대부동 주민들로부터 이러한 상황을 전달받고 즉시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비상상황 시 주민들이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개선을 요청하고 이후 국토부, 수자원공사 등과 현장을



대부도저널 직원 모집

모집부문	인원	자격요건
편집국 기자	0명	경력사항 : 신입/경력(연차무관) 학력사항 : 대학(2.3년) 졸업 이상 기 타 : 대부도 및 안산거주자 우대
광고/사업국	0명	경력사항 : 신입/경력(연차무관) 학력사항 : 고졸이상 기 타 : 1.대부도 및 안산거주자 우대 2.차량소지자 우대
영상제작편집국	0명	경력사항 : 경력자(영상 제작 편집 가능자) 학력사항 : 학력 무관 기 타 : 유튜브 제작 경험자 우대

-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1부, 이력서 1부(지원부문 명기)
- 제출기간 : 채용시까지
- 대 우 : 4대보험 가입, 급여는 연봉 협의 후 결정
- 서류제출 : E-mail dj250407@naver.com

※ 직접 내방이나 우편접수도 가능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대부도저널(주) 총무국 ☎ 032-880-9994

市, 한양대 ERICA캠퍼스 외국인 유학생과 소통의 장 마련

‘안산시 특화 시책’ 수립을
위해 지원방안 추진됐다.

안산시는 21일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에서 관내 외국인 유학생 20여 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산시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산시 특화 시책’ 수립을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 소개 ▲시의 다양한 외국인 지원사업 및 외국인 대상 행정서비스 기관 현황 소개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은 ‘외국인 유학생 대상 특화 시책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시간이 중점 주제로 다뤄졌다. 유학생들은 ▲한국 생활 적응의 어려움 ▲학업과 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 ▲지역사회 활동 참여 방안 등을 놓고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했다.



안산시는 21일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에서 관내 외국인 유학생 20여 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선화 기자

고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참석자 전원이 ‘안산시 이민청 유치 응원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하며 안산시 주요 현안을 지지하는 시

간도 이뤄졌다.

이역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

이라며 “간담회에서 수립된 의견을 검토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안산고용복지+센터, 청소년심터와 업무협약 체결

취업을 통한 자립! 위해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복지+센터(소장 홍성지)는 가정 밖 위기 청소년과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6일 안산시여자단 기청소년 심터 1층 회의실에서 안산시남자·여자단기청소년심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산시남자·여자단기청소년심터는 만 9~24세까지 가정 밖 청소년과 청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며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복지시설로 지난해 누적 인원 10,000여 명이 이용했다.

이번 협약으로 안산고용복지+센터는 안산시남자·여자단기청소년심터와 함께 ▲진로탐색, 직업상담 및 직업훈련 정보 제공 ▲청년정책 사업 설명회 개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연계 ▲각 기관 서비스 및 자원 연계에 적극적 홍보를 하기로 했다.

홍성지 안산고용복지+센터 소장은 “위기 청년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 직업훈련 지원 및 직업정보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구직자도약패키지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 더불어숲 직업재활센터-한양대 디자인학과 산학 연계 협업

발달장애인들 사회적
자립 도모하고자 기획

안산시는 더불어숲 직업재활센터(시설장 윤영선)와 한양대학교 에리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교수 이선미)가 산학 연계형 수업을 추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업 과정은 발달장애인들이 미술작가로서 직업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실제 결과물을 활용해 수입으로 연결하면서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더불어숲 직업재활센터 발달장애인 10명과 한양대에리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학생 49명이 참여하는 이번 산학연계형 수업은 굿즈 디자인 제작과 디지털 드로잉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물품 제작 전 다양한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가치소비에 대한 소



안산시는 더불어숲 직업재활센터와 한양대학교 에리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가 산학 연계형 수업을 추진했다.

정희재 기자

비자 인식 변화를 조사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식개선 보드게임 ▲친환

경 물품 ▲ESG 실천제품 등 실용적 이면서도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

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양대 학생은 “발달장애인 작가의 작품에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보는 이가 자연스럽게 서사를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선미 한양대학교 에리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교수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단순한 결과물 제작을 넘어,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몸소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이 창작한 작품을 산업디자인으로 확장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발달장애인의 자립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복지+센터는 가정 밖 위기 청소년과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6일 안산시 여자단기청소년 심터 1층 회의실에서 안산시남자·여자단기청소년심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태창 기자

본사방문 감사합니다



△장미숙 더불어민주당 당원
△나정숙 전 안산시의원
△권미영 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박상수 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 대부동협의회장
△강정미 상록수생태농어촌협동조합 이사장
△선현우 안산시의원

한국바다낚시업연합회

바다낚시업의 활성화와
바다낚시인의 안전한 힐링 장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국바다낚시업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바다낚시업연합회 회장 조부형

안산시의회 3개 상임위, 市와 간담회 개최

기행·문복·도환초, 정례회 앞두고 회기 안전 등 협의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20일 안산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열고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안전 관련 사전 조율에 나섰다.

이날 각 상임위원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3개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시 집행부 27개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명훈) 위원들은 간담회에서 시 청년정책관 등 9개 부서 관계자들과 총 19건의 안건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 측은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잔동30블록 공영주차장 공유재산 처분이 포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위원들은 보고된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더라도 공사비 상승에 따른 예산액 변경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으며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 공유재산 처분 관련해서는 매각 전에 학교부지 확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고잔동30블록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관련해서는 서둘러 처분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큰 틀의 발전계획의 수립 후에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설호영) 위원들도 이날 문화예술과 등 9개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18건에 대해 보고 받고 위원회 의견을 전달했다.

위원들은 보고된 풍도관광안내센터 조성 공사에 관련해서는 풍도를 찾는 여행객들 및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과 유익한 관광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풍도 관광안내센터 조성 사업에 세심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울러 함께 논의된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육아용품 구매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양질의 제품을 누릴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위원들도 간담회에서 도시계획과, 철도경제자유구, 건설도로하천과 등 9개 부서 관계자들과 총 20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3차),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안산 ASV지구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현황, 어린이공원 및 선부광장 정비계획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다.

위원들은 특히 도시관리계획 재정



안산시의회 3개 상임위원회가 지난 20일 각 상임위원장실에서 안산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위부터 차례대로 이날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비와 관련해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시설 정비 및 교통복지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과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와 의 협의를 마친 시의회는 다가오는 26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부의안건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태창 기자

박해철 의원, 석수중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및 간담회 참석

“안전한 학교, 함께 만드는 공동체가 답입니다 ‘강조’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안산시병)은 20일, 안산석수중학교에서 열린 학부모폴리스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과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학교폭력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캠페인은 단원경찰서, 석수중학교 학부모폴리스, 재학생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학교폭력과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교내 홍보 활동으로 진행됐다.

박해철 의원은 간담회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표정에서 학교의 분위기와 교직원들의 따뜻한 관심이 느껴졌다”며 “아이들의 곁에서 함

게 지켜주고 계신 학부모들의 활동이야말로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 든든한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희망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학부모들은 학교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공유했고, 박 의원은 이를 경청하며 “학생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교와 학부모, 경찰, 지역 정치인이 함께한 생활안전 실천 사례로, 안산 지역 내 학교폭력 예방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안산시병)은 20일, 안산석수중학교에서 열린 학부모폴리스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과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학생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태창 기자

안산시의정회, 엠블던호텔에서 前 시의원 상대 효잔치 펼쳐

80세 이상 된 8명의 前 시의원 대상으로

사단법인 안산시의정회(회장 박명훈)가 지난 16일 엠블던호텔 오델리아실에서 ‘효’잔치를 개최했다.

박명훈 회장은 삼강오륜중 장유유서를 강조한 뒤 80세 이상의 전 의원들에게 ‘효’의 중요성을 말하고 만수무강을 기원했다.

최종락, 노철수, 전용장, 심장보, 유승돈, 한기복, 정윤섭 전 의원 등 8명

의 의원들에게 한복을 마련해서 입게 한 뒤 젊은 의원들이 효잔치를 펼쳤다. 이어 단원병원, 고든병원, S안과, 마인드 치과와 협약식도 가졌다. 각 병원에서 마련한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맹명호 전 시의원이 목 안마기를 선물로 후원해 줘 이번 행사를 더욱 빛냈다.

1부에 이어 2부는 점心和 다과 및 노래로 80세 이상 전 시의원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했다. 김태창 기자



사단법인 안산시의정회가 지난 16일 엠블던호텔 오델리아실에서 ‘효’잔치를 개최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 위촉식

제21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위원장 전해철)가 5월 20일 여의도에서 위촉식과 간담회를 가지며, 위원회의 활동을 본격화했다.

여의도 용산빌딩에서 개최한 행사에서는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과 황희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해철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

원 모두를 위촉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도 함께 이루어졌다.

전해철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 혁신을 위해 디지털 분야 각계 전문가분들이 함께 모여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라며, 위원회의 출범 취지를 밝히고, “앞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25년 경력 간판 제작 설치 전문업체

Led채널. 특수제작간판. 썬팅. 현수막. 명함. 판촉물

 **mi-re**
enterprise

미레기획

대표 이병철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133(대부북동) ☎ 010.9366.9699

제2회 대부도 사랑나눔 대축제 6월 14일 예정

19일 대부보건지소 2층 회의실에서 최종 준비모임

제2회 대부도 사랑나눔 대축제가 오는 6월 14일 토요일로 예정된 가운데 19일 대부보건지소 2층 회의실에서 최종 준비모임을 갖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일정에 따라 한 번 정도의 준비모임은 더 가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회 대부도 사랑나눔 대축제는 오는 6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대부중고등학교 운동장 펼쳐질 예정이다.

당초 추진되던 대부바다항기테마파크에서 장소가 변경됐다.

이번 대축제는 지난해 대남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된 것에 이어 추진되는 것으로 대부도복지센터가 주최하고 대부초, 대남초, 대동초 등 학부모 관계자가 적극 지원하는 체계로 활동하고 있다.



제2회 대부도 사랑나눔 대축제가 오는 6월 14일 토요일로 예정된 가운데 19일 대부보건지소 2층 회의실에서 준비위원들이 최종 준비모임을 갖고 있다. 김태창 기자

대상은 대부도 내 지역주민과 아동 및 청소년들로 수익금 전액은 대부도 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기부하게 된다.

주최측은 축제를 통해 대부도내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경험과 배움의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배움의

즐거움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특색있는 맛집을 찾습니다” 안산시, 6월10일까지 접수

관광지 대부도 선정기대 신청하지 않으면 미선택

안산시는 다음달 10일까지 도시를 대표하는 특색있는 맛집을 선정하기 위해 ‘안산의 맛집’ 추천 접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외식업소를 시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안산의 맛집’을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내 125개 업소가 ‘안산의 맛집’으로 등록돼 있다.

추천 대상 업소는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이다. 지난해 5월 24일 이전에 영업신고를 마친 업소가 해당된다. 다만,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커피·주류 전문취급 업소, 최근 2년 이내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

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있는 추천서를 작성해 팩스(031-481-3198) 또는 전자우편(tjsdud0629@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로 추천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 지정 자격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맛·서비스·위생관리 등의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오는 8월 중 최종 20개소를 선정한다. ‘안산의 맛집’ 선정 업소에 대해서는 ▲‘안산의 맛집’ 현판 배부 ▲위생용품 지원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책자 제작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의 특색을 살린 숨은 맛집이 많이 알려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외식업소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운영 기자
debora7@naver.com

市, 지하화부터 녹도 재정비까지... 도시개발 현장서 간부회의



안산시는 21일 고잔역~초지역~중앙역 일원에서 간부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윤성용 기자

이 시장, 도보로 로드 체킹 초지역·고잔역·중앙역 일원

안산시는 21일 고잔역~초지역~중앙역 일원에서 간부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민근 시장 주재로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중앙대로 녹도 재정비 사업 등 주요 도시개발 사업 현장을 로드 체킹하며 구체적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는 초지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거, 상업, 공공시설을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구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시 연계성 확보에 더해 철도 상부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놓고 집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안산선 지하화 선도시업 구간 건너편 중앙대로변 녹도 재정비 사업 대상지를 찾았다. 이곳에서는 상가 인근에 조성된 녹지대로 인한 접근성 단절과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권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했다. 시는 기존 노후화된 녹지축을 주차 및 휴게공간으로 재정비,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주민·방문자·상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안산의 새로운 이음새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안산의 미래를 준비하고, 도시공간을 체계적으로 재편하는 등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서간 유기적 협력, 시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선부 행복주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예비입주자 11가구 모집

6월 4~9일 접수, 추첨 8월 중순 예비순번 부여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승)는 청년·대학생·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위해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 ‘안산선부행복주택’의 예비입주자 11가구를 다음달 4~9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원구 선부로 35에 위치한 선부동 행복주택은 18㎡형(약 5.5평) 244가구, 36㎡형(약 11평) 42가구를 총 286가구 규모이며 에어컨, 비데, 가스쿠팡 등이 마련돼 있다.

모집기간 중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여부, 소득 요건

등 입주 자격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며, 적격 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첨 절차를 통해 올해 8월 중순 예비순번을 부여한다.

모집 대상은 36㎡형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총 11가구이며, 현재 입주 중인 세대가 퇴거할 시 입주가 가능한 예비입주자다. 따라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선부역과 안산역, 영동고속도로 서안산나들목(IC)이 모두 2km 내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해병대 선후배님들의 지역 모임입니다

해병대 신입대원을 찾습니다

대부전우회 회장 최영휘 010-3755-5859

대부전우회 사무국장 임준채 010-3731-4754

‘안산 출신 황신 6관왕’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성황리 폐막

안산 장애인부모연대 자랑스러운 딸에게 축하 박수 보내며 훈훈함 더해

대한민국 장애인스포츠 꿈나무들의 도전과 성장의 무대,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이번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지난해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는 경상남도 일원에서 다시 개최했다. 역대 최다 인원 4천165명(선수 1천926명, 임원 및 관계자 2천239명)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과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경기도는 212개(금 85, 은 62, 동 65)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했다. 개최지 경남은 71개(금 27, 은 21, 동 23)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서

는 두 명의 6관왕(경기도 김재훈(수영), 경기도 안산시 황신(수영))과 한 명의 5관왕(경기도 김윤호(수영))을 기록한 선수가 나왔다.

그중 수영선수 황신은 안산 장애인부모연대 회원의 딸이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다.

안산출신 황신(17)은 출전한 모든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6관왕을 달성했다. 황신은 여자 계영 S14 초·중·고등부에서 2분51초97, 여자 접영 100m S14 고등부에서 2분02초17, 여자 혼계영 S14 초·중·고등부에서 3분24초37, 여자 평영 50m S14 고등부에서 51초15, 여자 평영 100m S14 고등부에서 1분54초22를 기록하며 모두 정상에 올랐다. 황신은 지난해 4관왕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한층 더 성장한 면모를 보여줬다.

소명원 시민기자 sosibang@naver.com



16일 창원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수영 경기에서 황신의 경기 모습이다. 소명원 시민기자

행복나눔글로벌교회 손님초청 안식일 행사 가져

17일 대형 콘서트 방불 50여명 참석 대성황 이뤄

“환영합니다.”

고잔동 소재 행복나눔글로벌교회(담임목사 김영수)가 17일 50여명의 손님을 초청해 안식일을 갖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안식일 학교 프로그램은 대형가수가 참여하는 콘서트를 방불케 했다.

서울예술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뮤지컬 가수 광유림의 특송으로 국악찬양과 캄보디아 난민의 팔로 한국에서 자라고 있는 중학교 소녀 헬렌의 특송 turn your eyes upon jesus 가 이어졌다.

뮤지컬 가수 광유림은 뮤지컬 명성왕후의 주연으로 활동한 바 있고, 헬렌은 4개 국어를 구사하는 인재로 잘 알려져 있다.

찬양대 또한 특송으로 이어지면서 담임목사와 수석장로까지 참여하는 찬양에 이르기까지 1시간 동안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의 콘서트장으로 손색이 없었다.

행복나눔글로벌교회는 다문화가정과 근로자 및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교회로 해마다 교회를 후원해주거나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을 초청해 안식일을 갖는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오고 있다.

이날이 바로 그런 행사의 날로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이다.

김영수 담임목사는 “우리나라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보다는 교회에 간다는 말을 더 선호한다”면서 “교회를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누구나 손님으로 초청되고 참여하는 행사가 바로 오늘 행사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고잔동 소재 행복나눔글로벌교회가 17일 50여명의 손님을 초청해 안식일을 갖는 행사를 가진 자리에서 담임목사와 수석장로까지 참여한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김수진 교육장은 “통합교육 전문 인력풀과 다중지원체제를 기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단

위학교와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통합교육의 가치가 현장의 실천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행복한 아침 Ⅲ집: 월안회 수필집 발간

박창옥·이숙자·지종분 공정옥·김영덕·김명자 이승보·박향순 공동 저

8명의 교회와 팔순을 맞이한 여성들이 모여,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수필집 ‘행복한 아침 Ⅲ집’이 문트 출판사를 통해 출간되었다. 이 작품은 ‘월안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평범한 시민들의 창작물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모음집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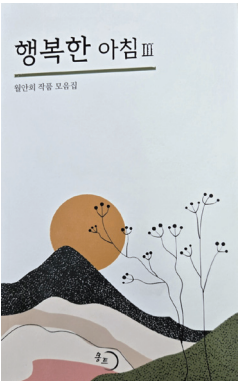
각각의 수필은 인생의 깊이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담고 있으며, 독자들에게 따뜻함과 영감을 전달한다. 이 책은 단순한 수필집을 넘어서, 여성들의 삶과 사랑, 그리고 시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작가로 참여한 인물은 △박창옥 강서고등학교 전 이사장, 강서병원 전 원장 △이숙자 전 안산대학교 학장

△지종분 주식회사 P&S 회장 △공정옥 안산소비자 시민모임 대표 △김영덕 사단법인 류씨 최용선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김명자 주식회사 삼정주유소 대표이사 △이승보 사단법인 한국포크댄스협회 회장 △박향순 전 성진화학 대표이사이다.

‘행복한 아침 Ⅲ집’은 인생의 황금기에 접어든 여성들이 전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으며,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 줄 것이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교육지원단 1차 협의회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함께 걷는 첫걸음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220일, 안산교육지원청 동행관 4층 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통합교육지원단 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통합교육지원단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이 참석해 「2025 안산 통합교육 지원 운영 계획」에 따라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통합교육 실현’을 목표로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통합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2025학년도 통합교육지원단의 세부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관내 관리자·일반교육교원·특수교육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교육 운영 현황 및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설문 결과를 분석해 현장 중심 맞춤형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주

요 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찾아가는 통합교육 컨설팅 지원 ▲통합교육 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교직원 대상 찾아가는 통합교육지원단 연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자·통합학급 교사·특수교사 대상 연수 ▲학교 차원에서의 통합학급 지원 자료 개발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향후 통합교육지원단의 역할과 통합교육의 최선의 실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실천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더불어 참석한 위원들은 “통합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의 차원을 넘어, 개별 학생이 존중받는 자연적 지원 환경을 구축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포용적인 교육 문화를 조성함에 있음”에 뜻을 함께했다.

(주) 황금토목측량설계공사

대표 유재용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로1288 (대부북동)
TEL. 032.886.1817 M. 010-3433-4635



측량(경계, 현황, 분할),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입목조사, 입목벌채허가, 복구설계, 재해위험성 검토) 형질변경, 토목설계(토목4구조계산), 토목시공(매립, 보강토, 옹벽, 토지 절, 성토) 도로 점 사용허가, 사도개설, 성장관리 계획구역 검토 및 자문, 각종 민원처리

본오2동 지사협, 위기가구 주거환경개선 봉사



상록구 본오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일 관내 위기가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사협 위원들은 아침부터 집 안의 물건을 정리하고 폐기물을 분리 배출했으며 주방, 욕실, 방바닥의 목은 때를 청소했다.

또한 관내 업체(가가벽지, 대표 곽영술)의 도움으로 훼손된 벽지를 교체하고, 더러워진 이불을 세탁했으며 바닥 생활을 불편해하는 대상자를 위해 2인용 식탁과 의자를 구매해 설치했다.

송영진 민간위원장은 “좋아하시는 어르신들 보니 보람차고 기분이 좋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발굴하고 돕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우 공공위원장(본오2동장)은 “바쁜 일정에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에 주신 지사협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다”며 “민관 협력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본오2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운영 기자 debora7@naver.com

사동 지사협,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탁 만들기 나서



상록구 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1일 지역 내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 증진과 도내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단순히 식재료 지원을 넘어 사동 지사협 위원들이 직접 연 4회 김장 활동을 하고, 회차마다 취약계층 24가구에 정성이 담긴 김치와 각 계절에 맞출 수 있는 다양한 과일을 전달해 이웃과 소통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승순 민간위원장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이웃 간 정서적 유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자영 사동장은 “복지 향상과 경기도 농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두 가지 공익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사이동 자율방재단, 풍수해 대비 빗물받이 정비



상록구 사이동 자율방재단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관내 빗물받이 정비활동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활동엔 사이동 자율방재단원 13명이 참여해 사이동 감골지대와 주요 대로변, 평안로 녹지대 및 인근 주차장 일대의 빗물받이를 점검하고, 배수를 방해하는 낙엽과 흙, 쓰레기 등을 집중적으로 제거했다.

고남숙 사이동 자율방재단 대표는 “작은 실천이지만 침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안전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은현 사이동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관내 빗물받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여름철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저널 기사제보
www.daebudjournal.com

선부1동 선부어울림적십자봉사회, 달풍놀이터 ‘효잔치’



단원구 선부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선부어울림적십자봉사회가 마을 어르신 100여 명을 위한 달풍놀이터 ‘효잔치’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효잔치’는 매년 달풍놀이터(선부1동 성동연립소재)에서 행사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해 연립단지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정성껏 마련한 잔치 음식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광심 선부어울림적십자봉사회장은 “세대 간 친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며 “이웃분들이 관심을 두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박은혜 선부1동장은 “아낌없는 봉사와 선행을 하는 선부어울림적십자봉사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해 관내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선부3동 ‘성 평등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MOU



단원구 선부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의 하나로 5개 기관과 함께 ‘성평등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및 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MOU를 체결한 6개 기관은 선부3동 행정복지센터와 안산YWCA 여성과성상담소,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센터, 안산시청소년협의회, 경기도아동돌봄센터, (사)씨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등이다.

한승희 선부3동장은 “지역사회 협력망구축을 통해 마을안전지킴이(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 폭력 피해를 사전에 발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부3동 행정복지센터는 6월부터 주민들과의 접점에서 활동하는 마을안전지킴이 단체들을 위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성포동 자율방재단, 사랑의 마늘쫀 장아찌 나눔



상록구 성포동 자율방재단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9일 관내 저소득 어르신 48가정에 사랑의 마늘쫀 장아찌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전달한 마늘쫀 장아찌는 이영애 자율방재단 단장과 단원들이 충남 서산 농가에서 직접 구슬땀을 흘리며 농촌 일손 돕기 봉사를 하면서 수확한 싱싱한 마늘쫀으로 만든 밑반찬이다.

이영애 자율방재단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 일손 돕기도 하면서 수확한 마늘쫀으로 어르신들에게 영양가 높은 제철 마늘쫀 장아찌를 나눔으로 농촌 어르신들과 성포동 관내 어르신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승희 성포동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농촌 일손 돕기와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한 밑반찬을 준비해 주신 자율방재단장님과 단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웃 간에 사랑과 정이 넘치는 더불어 살기 좋은 성포동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 **박 정 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Tel.032-880-8533 Fax.032-880-8532

Hp. 010-2378-7128

wjdxkr78@hanmail.net

“갯벌이 살아 숨쉬는 청정지역 대부도”
 “미네랄이 풍부하고 황토로 구워 만든”
 “쓴 맛이 없고, 오직 단맛으로 음식의 풍미를 높이는”

동주염전 소금



소금지기 생산자 (동주염전2구) 김관중

M. 010-9080-1195

토판 소금 / 일반 천일염 / 송하소금 판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부흥 127-1

세무사 최육진

최적의 세무사, 최상의 경력과 경험

국세청 32년 경력

조사 14년 / 감사 8년
 세원관리 6년 / 불복업무 등 4년

퇴직 전 5년

안산세무서 조사과장 퇴임
 중부지방국세청 감사팀장
 안양세무서 개인납세과장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육진 세무회계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28,201호 (본오동, 보노피아빌딩)
 (TEL) 031-8042-6670 (FAX) 0507-1799-3480
 (E-MAIL) cujtax0522@naver.com

고객 여러분의 파트너로서
 핵심업무에 경력과 경험을 갖추고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있습니다

☑ 더불어 성장하는 세무 도움

- 매입,매출 정리 등 장부 기장 대행
-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 대행
- 직원 급여 관리 (4대보험 등)
- 경영 컨설팅 (세액 감면/ 공제)

☑ 재산 이전 고민해결 컨설팅

- 양도/ 상속/ 증여
- 사전 증여 등 부의 이전 컨설팅
- 주식 이전 (주식 평가 등)

☑ 억울한 세금 해결하는 불복 업무

- 고지 전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 고지 후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납세자 고충 (민원신청)

☑ 조사 등 세무간섭에 대한 대응

- 세무조사에 대한 업무 대행
- 과세자료 해명 요청에 대한 대응
- 잘못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경정청구)

웅진군, 새 병원선 “건강웅진호” 첫 출항 및 주민 순회진료 시작

백령·대청·소청도 주민 100여명부터 큰 호응

웅진군은 20일 새 병원선 ‘건강웅진호’ 첫 운항을 시작으로 백령·대청·소청도 주민 순회진료를 실시 했다. 이날 진료에는 100여 명의 주민이 일반 진료와 더불어 육지 병원에서나 받을 수 있었던 최신 의료 장비를 활용한 AI기반 심장 검사, 골밀도 검사, 초음파 진단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등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았으며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건강웅진호는 270t급 규모로 전장 47.2m, 폭 8.4m로 더 크게 건조되어 기존 병원선의 노후로 인한 운항거리 및 속도제한으로 가지 못했던 서해5도서까지 진료범위를 확대하고, 진료 과목도 크게 늘렸다. 또한, 응급환자 후송을 위해 최고 25노트 속력으로 더 빠르게 건조한 수도권 유일의 병원선이다.

도서주민의 최소한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 내과, 치과, 한의과, 약제

실 등 기존시설에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보건교육실을 신설하고 최신 의료장비와 운영·의료진 4명의 필수인력을 추가하여 15명 배치하는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지역 주민들이 육지로 나가지 않고도 기본적인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이에 군은 병원선을 연간 132일 이상 운항할 계획이며, 진료지역은 6개면 17개 섬으로 서해5도(백령, 대청, 연평)까지 확대하였으며, 진료범위는 도서지역 질환특성을 감안하여 고령 인구 진료와 만성적인 근골격계질환 물리치료, 초음파·골밀도검사·방사선 촬영, 임상병리검사와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지역사회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1섬1주치의 무료진료사업”과 연계 하여 전문의 의료진을 통한 다양한 진료로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문경복 군수는 “건강지킴이로 희망을 실어 나르는 건강웅진호의 첫 출



웅진군은 20일 새 병원선 '건강웅진호' 첫 운항을 시작으로 백령·대청·소청도 주민 순회진료를 실시 했다. 김태창 기자

항을 축하하며, 백령·대청면 주민 순회진료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격려와 안전운항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질병치료와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 소외 없는 건강가득 웅진군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료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적기 모내기 추진 위한 웅진군 모내기철 일손돕기 추진

영흥면,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등 개면 대상으로

웅진군은 적기 모내기 추진 및 웅진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 일손이 많이 소요되는 모내기 작업에 일손돕기를 추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일손돕기는 웅진군 7개면 중 근해도서인 영흥면,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4개면을 대상으로 모내기 집중기간에 맞추어 웅진군 소속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모내기 작업에 힘을 보탤다.

일손돕기에 참여한 공직자들은

모판나르기, 이앙기 보조, 논 정리 등의 작업을 함께하며, 농업인들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지역 농업의 현실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에 따라 농촌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번 일손돕기가 벼 재배 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사)인천의료사회봉사회-웅진군자원봉사센터 연평지소



(사)인천의료사회봉사회와 웅진군자원봉사센터 연평지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윤성용 기자

짜장면 나눔 봉사 이웃사랑

(사)인천의료사회봉사회와 웅진군 자원봉사센터 연평지소(지소장 전선자)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사)인천의료사회봉사

회에서 짜장면 재료를 지원하고, 봉사자들이 정성스럽게 조리과 배식에 나서 진행됐다. 지난 20일 진행된 행사에는 대연평에서 220인분의 짜장면을 준비해 어르신들께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는 등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오는 22일에는 소연평도에서는 60인분의 짜장면

나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선자 연평지소장은 “정성을 다해 준비해주시는 봉사자 여러분과 따뜻하게 참여해 주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하며 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

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웅진군자원봉사센터 연평지소는 그동안 꾸준히 밀반찬 지원사업 및 환경 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여 왔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연평면 “구리동 해수욕장” 환경정화 활동

웅진군 연평면(면장 황준철)은 20일, 구리동 해수욕장에서 지역 주민 및 관내 유관단체와 함께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은 연평면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로 면

직원, 유관기관, 일자리사업 근로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하여 해수욕장으로 밀려온 폐그물, 스티로폼, 플라스틱, 빈병 등 각종 해수욕장 쓰레기 약 8톤을 수거했다.

특히 불법 투기 사전 예방과 종량제

‘해안환경 정화를 위한 구슬땀’ 덕적면 5월 2차 클린업데이 실시

웅진군 덕적면(면장 김남우)은 21일, 밭지를 해변에서 깨끗한 섬 덕적도를 만들어 가기 위한 클린업데이 행사를 실시하여 10톤 가량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은 면 직원, 이장단, 주민자치회 등 약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특히, 서울시설공단 직원 17명이 봉사의 손길을 보탤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전날인 20

일부터 인구소멸 어촌지역 주민을 위해 전등교체 등 간단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에는 해양쓰레기 환경정화 활동에도 적극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김남우 덕적면장은 “우리의 관심과 실천이 모이면 덕적도는 더욱 깨끗한 섬이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와 활동을 통해 클린업데이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운영 기자 debora7@naver.com

토목공사 / 건축공사 / 보강토 시공 / 토지개발/ 토지분양 / 컨설팅

양지개발

대표 김상준 H. 010-9393-5783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67-12 (방조제길 113)

김 지사 “‘겜기도’로서 게임산업 본산 되도록 지원 아끼지 않겠다”

22일 ‘플레이엑스포’ 개막
e스포츠 리그 및
체험형 콘텐츠 대거 선보여

수도권 최대 융·복합 게임쇼 ‘2025 플레이엑스포(PlayX4)’가 22일 막을 올렸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킨텍스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25일까지 나흘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개막식에서 “저는 어렸을 때 ‘도가 넘치게’ 만화를 좋아했다. 중학교 때는 소설을, 고등학교 때는 스포츠를 좋아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영화를 좋아한다”며 “제가 좋아했던 만화, 소설, 스포츠, 영화,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하나는 상상력,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인 것 같다. 오랫동안 공직에 있으면서도 상상력을 많이 가지려고 애를 썼던 그 원천은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상력과 스토리텔링에 체험을 더한 게임은 우리의 자산이자 보물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를 겜기도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한다. 그만큼 경기도가 대한민국 게임산업과 체험의 중심이기 때문”이라며 “이제 게임은 즐기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로 성장하고 있다. 경기도가 겜기도로서 게임산업의 본산이 되도록 각종 지원과 역할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시장을 관람하며 경기게임마이스터고의 고등학생 개발자와 네오위즈의 청년 개발자를 면담하고 모바일게임을 시연해 보기도 했다.

플레이엑스포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융복합 게임 전시회로, 단순한 게임 소개를 넘어 게임산업의 진흥과 대중적인 체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중소 게임사를 위한 수출 상담회와 글로벌 비즈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도 함께 구성돼 전 세대가 함께하는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

‘2025 플레이엑스포’는 ‘게임, 그 이



21일 오전 킨텍스 1전시장에서 열린 2025 플레이엑스포(PlayX4)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참가자 전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상!’을 주제로, 체험형 콘텐츠, 이스포츠 리그, 글로벌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게임산업의 새로운 가능성과 문화를 제시한다.

올해 행사장에서는 DJ 바가지의 게임 OST 디제잉 공연, 마술사 이준형의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국내외 게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특히, 중국과 일본 등 해외 게임쇼 조직 위원회도 참여해 경기도 게임 산업과의 협력을 다짐하며 글로벌 연대의 장을 만들었다.

관람객들은 사전등록을 통해 2홀 입장 대기구역에서 보안요원의 안내를 받으며 간편하게 입장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주출입구는 요일별 교차 운영되며, 재입장 전용 입구도 마련돼 편의성이 높아졌다. 사전 등록자에게 제공되는 입장권은 날짜나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재방문이 가능하다.

B2B관에서는 수출상담회, 비즈매칭, AI 포럼, 게임 오디션 등이 진행되며, 글로벌 게임사들과의 협업 및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게임 트렌드 특별강연, 프리플레이존, 유저 집종 테스트(FGT) 등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PlayX4 × STOVE’ 온라인 전시관도 함께 마련돼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전시장에는 콘솔, PC/모바일, 아케이드, 인디게임, 보드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가 전시되며, 최신 게이밍기

어 체험도 가능하다. 특히, 스팀팩 체험존은 인기 게임을 휴대용으로 즐길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도전 골든벨, 추억의 게임장, 리듬게임 대회, 국제 코스프레 대회, 리듬게임 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경기 이스포츠 페스티벌에서는 전국 장애인 대회, 전국 캠퍼스 대항전, 가족 대항전, ‘이터널 리턴 대한민국 이스포츠 리그 개막전’, ‘ASL 시즌19

결승전’ 등 다양한 경기가 진행돼 현장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뜨거운 응원을 이끌어낸다.

행사 관련 정보는 운영사무국(031-995-8237)으로 문의하거나 공식 누리집(www.playX4.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프로그램은 숲(SOOP)의 ‘플레이엑스포TV’ 채널을 통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주차 공간이 한정돼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임태희 교육감 “지역특화 반도체 교육으로 미래의 보배 기르겠다”

경기도교육청-이천시
SK하이닉스 업무협약
반도체 과학 인재 양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1일 이천 수펙스 센터에서 반도체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천시청, SK하이닉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지역특화 과학교육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은 이천지역 특산품인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지역의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했다.

반도체는 최첨단 과학기술로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천시청은 반도체 산업에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세계적 반도체 기술, 시설,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반도체 과학교육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교육청은 ▲반도체 과학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가칭)이천과학고 개교 지원과 반도체 특화교육을 추진한다.

이천시는 ▲반도체 과학교육 거점 활동 공간 제공 ▲반도체 과학교육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가칭)이천과학고 개교 준비를 위한

장윤정 의원, 학교 조직 간 갈등 해소 위한 조례 제정 추진

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정담회 가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학교 내 교무와 행정 조직간 반복되는 업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장윤정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학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학교 운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조직 간 업무 충돌 사례와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학교 관계자들은 “경기도 내 약 2,500개 학교가 각기 다른 학교장의 주관에 따라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다 보니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그로 인한 혼선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며,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명확한 업무 분장 기준을 제시해야 현장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장윤정 의원은 “학교 내 조직 간 갈등은 단순한 업무 문제를 넘어 교육환경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교무와 행정 조직 간의 업무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 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시작으로 교직원, 교육청 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기도립학교 관리조직 및 업무 갈등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학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학교 운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조직 간 업무 충돌 사례와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을 담당한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공유학교 강사 및 펌투어 지원 ▲이천 특화 ‘반도체 hy-스쿨’ 개설 및 운영 ▲경기도 특성화고 반도체 분야 계약학과 교원대상 펌 투어 지원 ▲(가칭)이천과학고 반도체 특화교육 협력 등을 지원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들이 기대하는 정책을 교육 당국의 힘만으로 실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며, “학생이 최고 수준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한 학교교육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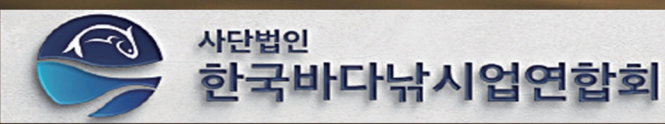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도심속의 힐링 장소!!

남녀노소 편안하게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

등대바다낚시터, 대부바다낚시터,
독도바다낚시터, 어심바다낚시터,
하늘바다낚시터, 해솔바다낚시터,
서해바다낚시터, 케이쓰리바다낚시터

안산지부



주식회사 대동토지개발 양금순 대표를 만나 반달섬의 미래를 듣는다

반달섬,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활기 찾는 과정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건의’

주식회사 대동토지개발 양금순 대표가 반달섬에 새롭게 동지를 틀었다. 5년 후, 10년 후의 반달섬을 그리고 있는 양금순 대표는 한양대학교 AMP총동문회장과 신안산대학교 AMP총동문회장을 역임하는 등 교육활동과 사회활동에도 왕성한 여걸로 통한다.

반달섬이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가 바뀌게 되면서 함께 뒤따라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 주거가 가능해지면 곧바로 이어지는 게 아이들 문제다. 가정이 꾸러지고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터전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필요할 수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필요하지만 우선 급한 것은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다. 1만5천여세대가 입주를 완료하게 되면 행정복지센터, 파출소, 119안전센터 등도 필요해질 수 있다. 하나의 거대한 동(洞)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양금순 대표는 반달섬의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선 스타베이시티 (국제테마파크)가 그랜드오픈 후 연간 2~3,0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속적인 관광수요를 이끌어 주고 있을 것이다.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의 직주근접수요, 송산그린시티의 개발인부의 숙식수요, 스타베이시티 관광객 및 근로자의 숙식수요까지 모두 해결해줄 수 있는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을 것이다.

해양레저시설 도입을 통한 마리나항 개발이 완료되어 있을 것이다. 송전철탑은 끝내 지중화가 완료되어서 유람선과 요트들이 반달섬 바로 앞에서 떠다니고 있을 것이다.

수도권의 마린시티로 각종 오피스텔 등은 장/단기 임대수요가 넘쳐나면서 공실 찾기가 오히려 하늘의 별따기가 될 것이며,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는 이런 반달섬의 대장으로 날개를 달고 비상할 것이다.”

Q 대부도를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최근 반달섬에 또 새로운 동지를 틀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도 택지개발을 통해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반달섬 프로젝트에 접목시키고자 했습니다. 반달섬은 인접한 안산 시가지 및 시흥시와의 교통망 확충이 가시화되면서, 주거·상업·레저가 어우러진 복합 커뮤니티 조성에 최적화된 입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해양레저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위터프런트형 스마트 타운’으로의 차별화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도에서 진행했던 인프라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반달섬에서는 친환경 녹지 축과 스마트시티 기술을 융합해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려는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도시정책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실현하기 위해 반달섬을 차기 개발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Q 반달섬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반달섬은 현재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와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반달섬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유령도시’ 또는 ‘공실천국’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각종 소형 오피스텔들이 이미 4~5000여 세대 입주한 상태로 거주지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1차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5월 16일부로 허가되면서 합법적인 주거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형평수의 거주세대 또한 약 2,500세대가 유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아직 분양 및 건축이 진행되기 전인 사업지들과 2026년 준공 예정인 라군인테라스 2차(약 1200세대) 까지 모두 합치면 약 15,000여 세대의 빌딩숲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반달섬 전체 세대수 계획에 비해 상권비율이 적게 잡혀있으며 항아리상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진입한 점포들의 매출이 안산 구도심에 비해 오히려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라군인테라스1차 입주시기에 맞춰서 다양한 업종의 신규점포 입점문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반달섬은 앞으로 어떻게 개발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까?

현재 라군인테라스 등의 오피스텔에 보다 빠른 입주민이 유입 등 반달섬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는 인근 전철역 및 대형마트 등까지의 대중교통망 확장과 파출소, 주민센터, 소방서 등의 필수적인 공공시설의 신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반달섬은 국토부 정책에 따라 각종 생활형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군인테라스1차의 용도변경이 허가된 것을 기점으로 삼아 앞으로 대부분의 생활형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완료하여 생숙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씻어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대부분의 건물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된다면 비록 아파트 밀집지역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법적인 주거시설이 일반적인 신도시에 비견될 정도로 많이 자리잡게 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초등학교와 부설유치원 정도가 신설되어서 자녀들이 있는 세대들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Q 반달섬이 개발되고 많은 시민이나 관광객들로부터 찾고 싶은 곳으로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보니까?

반달섬 자체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수요 못지않게 관광객 등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사람들의 홍보효과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당초 안산시 및 수원원공사와 각종 시행사업자의 계획에 맞춰서 시화호 바닷길 (안산천 하구 ~ 반달섬 ~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 개통을 통해 유람선 사업과 요트 등이 떠다니는 마리나항만 구축의 조속한 시행으로 반달섬의 해양레저산업 활성화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 또는 철탑의 관광상품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0년 2월에 안산.시흥.화성.수원원공사가 체결한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 업무협약이

5년이란 기간이 지나도록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빠른 시일 내에 송전철탑 지중화가 진행되어서 반달섬이 진정한 복합레저산업도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Q 반달섬에 마리나항을 개발하고 시화 내 다양한 개발사업과 연계한 해양레저시설 활용성을 높인다는 게 2020년도 초 안산시 계획이었습니다. 시화호 뱃길 사업과 함께 원원하는 개발인데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확실히 반달섬 내 해양레저시설 등을 통한 마리나항 개발이 안산시의 주요한 반달섬 개발계획 중 하나였습니다. 유람선 사업의 경우 작년말까지 시범운행을 하는 등 관련사항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유람선 전기문제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송전철탑 지중화, 마리나항 개발 등 시화호 관련 개발사업도 지지부진해 궁극한 상황이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반달섬 내 입주민과 수분양자 및 시화호를 끼고있는 안산.시흥.화성 시민들께서도 시화호 개발사업이 잘 이끌어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질 때 개발계획은 착실히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Q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의 반달섬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해결이 되었을 경우,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의 모습을 상상해보겠습니다.

우선 스타베이시티 (국제테마파크)가 그랜드오픈 후 연간 2~3,0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속적인 관광수요를 이끌어 주고 있을 것이며, 반달섬과 시화호를 끼고 마주보고 있는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는 송도국제도시급 규모의 신도시로 형성되어 6만여 세대가 앞 다투어 입주를 하고 있는 신규 개발지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반달섬 또한 이미 모든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의 직주근접수요, 송산그린시티의 개발인부의 숙식수요, 스타베이시티 관광객 및 근로자의 숙식수요까지 모두 해결해줄 수 있는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을 것입니다.

해양레저시설 도입을 통한 마리나항 개발이 완료되어 있을 것이며 송전철탑은 끝내 지중화가 완료되어서 유람선과 요트들이 반달섬 바로 앞에서 떠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달섬과 송산그린시티를 끼고있는 시화호의 바다는 낮에는 눈부신 윤슬로, 밤에는 물위에 신도시의 야경이 투영되는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반달섬은 수도권의 마린시티로 각종 오피스텔 등은 장/단기 임대수요가 넘쳐나면서 공실 찾기가 오히려 하늘의 별따기가 될 것이며,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는 이런 반달섬의 대장으로 날개를 달고 비상할 것입니다.

Q 끝으로 반달섬에 관심이 많은 사람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633, 118호(성곡동) 반달섬에 대동부동산을 열고 고객을 만나고 있는 (주)대동토지개발 양금순 대표를 그의 반달섬 사무실에서 만났다. 반달섬이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누구보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반달섬의 미래를 살펴하고 있는 양 대표의 역할을 무엇인지 그를 만나 들어봤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오피스텔 용도변경 최근 허가
라군인테라스 빌딩숲 가능성
반달섬 10년후 공실없는 ‘대박’
초등학교 빠른시일 내에 필요**”

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 주시지요.

위에 말씀드린 향후 10년 후 반달섬의 모습이 바로 저희 대동 식구들이 대부도에서 반달섬으로 넘어와 새출발을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이곳으로 넘어온지 6~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잡초만이 무성했던 반달섬이 이제는 곧 라군인테라스의 입주와 함께 진정한 시작을 알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신도시가 그렇듯 반달섬 또한 아직 남아 할 산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반달섬이 개발되어왔던 것처럼 앞으로 또 수년 뒤에는 얼마나 근사한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

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대동은 반달섬 내에서 반달섬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방문주시면 친절히 응대 약속드리겠습니다.(문의 010-8722-5095)

김태창 기자

양금순 프로필

전 한양대학교 AMP 총동문회장
전 신안산대학교 AMP 총동문회장
전 산업기술대학교 AMP 회장
전 한양대학교 여경회 회장
현 대동토지개발(주) 대표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7회] 총각 선생님이 대부도로 오게 된 사연



晴境(정경) 金善喆(김선철)
전 대남초등학교 교장
현 안산문화관광해설사

‘섬마을 선생님’ 노래의 주인공 서강훈 선생님은 노년(老年)에 대남초등학교 건너편 중부흥 느릿뿌리 끝 바닷가에 사셨다. 2018년부터 2020년 8월 25일 ‘섬마을 선생님’ 노래비가 세워질 때까지 3년간 다섯 번 정도 만나 선생님의 고향과 행적(行蹟)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1958년 대부초등학교부터 1961년 대남초등학교에 근무할 당시 섬 생활이 너무나 갑갑하여 서울 건국대학교에 합격하여 등록금도 납부하였으나, 대남 초대 정관호 교장 선생님이 교사가 부족하다며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 학교에서 벗어나는 길은 입대(入隊)가 최선이라는 말을 듣고 논산훈련소에 입소(入所)한다. 선생님은 군경유가족에 외동아들이라 군 면제자(免除者)여서 뒷돈을 주고 입대하였단다. 논산훈련소에서 특수병과에 차출되어 훈련을 받고 서울 자대(自隊)에

배치된 후 학업도 병행하여 1964년 건국대 법정대 행정학과를 졸업한다. 서울의 부대에 근무할 당시 하는 일이 사회악을 뿌리 뽑는 임무를 수행했는데, 도저히 적성에 맞지 않아 교사가 되려고 대부도로 왔으나, 모처(某處)의 지시로 인천으로 불들려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언론계에 종사하게 된다.

그 와중에 대부도 중부흥 수영목의 이춘자 섬색시가 인천 박문여고를 졸업하면서 파독 간호사로 가게 되어 집안에서 난리가 났다. 부유한 집안이라 돈을 벌려고 독일에 갈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서강훈 어머니께 연락하여 총각 선생님과 섬색시가 결혼을 한다. 총각 선생님이 여고(女高)를 갓 졸업한 열아홉 섬색시가 결혼하게 된 것이다. 독일 간호사는 집안 사촌이 대신 갔다고 한다.

선생님은 1937년에 서울 정동 근처에서 태어나 1944년 부친(父親)의 변고(變故)로 대부도에 온 후, 1945년 광복 후 서울로 갔다가 6.26 사변 때 대부도로 피난 온다. 전쟁이 끝나자 다시 서울로 되돌아가 1955년 종로 청운중학교 졸업 후 인천사범학교에 진학하여 1958년 졸업한다. 대부도에 발령받아 1958년 대부초등학교와 1960년 6월 대남분교장을 거쳐 1961년 대남초등학교에 근무한다. 1961년 말 논산훈련소 특수병과 요원 훈련, 서울 자대(自隊) 배치 및 대학교 학업 병행(並行), 1961~1963년 5.16 군사정변기를 거쳐, 1964년 건



1960년대 결혼한 총각 선생님과 섬색시가 살던 마을

NAVER MAP 캡처



2020년 8월 20일 대남초등학교 제자 박정심 대부동부녀회장과 담소를 나누는 서강훈 총각 선생님

국대학교 졸업 후 대부도에 와서 교사로 복직하려 했으나 인천에서 특수임무 수행 후 언론인으로 일생을 보낸다. 말년(末年)에는 일제 강점기에 사 놓은 대부도 바닷가 산에 집을 짓고 살았다. 총각 선생님은 대부도와 서울을 몇 번씩 오갔는가? 진정 ‘서울

엘랑 가지를 마오~ 떠나지 마오’ 총각 선생님 노래의 주인공임이 분명하다. 2025년 5월 3일 느릿뿌리 집에서 이춘자 섬색시를 만났는데 인천에 살 때 박형원, 탁용 선생님과 친하게 지냈고, 요즈음도 원주에 사는 양추자 섬색시를 자주 만난다고 하였다.

데스크 칼럼

대부도에 들어설 공립형 다문화학교 우리가 환영해야 할 이유는 많다



김태창
편집국장

대부도에 들어설 예정인 공립형 대안학교, 가칭 경기안산1교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려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 학교는 다문화 학생 70%와 일반 학생 30%를 선발할 계획인데, 다문화 학생 선발에 대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경기안산1교가 대부도에 들어서면 우수한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이 모이게 되어 지역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대부초·중·고 학생들과의 연계 수업도 검토되고 있어 지역 학생들의 교육 수준 향상도 기대된다.

학생선발도 1순위 안산 관내 학생, 2순위 경기도 관내, 3순위 전국 단위로 넓혀진다. 우수한 인재들이 이곳 대부도에 몰려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대부도에 공립형 다문화학교라고 하지만 공립형 국제학교와 같은 학교가 설립되는 것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우수한 교원과 학부모들이 대부도에 정착하게 된다. 이는 대부도 교육 발전은 물론, 지역 개발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것이다. 대부도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부족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경기안산1교 설립을 계기로 대부도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더 많은 우수 학생들이 대부도로 유입될 것이다. 이제는 외국으로 유학 가는 시대

가 아니라, 외국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 오는 시대다. 세계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어문화원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젊은 학생들이 줄을 선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는 물론 남미와 동남아에 이르기까지 한국어 열풍이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다. 경기안산1교에서 외국 학생들과 교류하며 친구가 되면, 그들이 귀국 후 그 나라의 정관계 인사들이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후에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류는 국가 간 우호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경기안산1교 설립은 대부도 개발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이 학교를 쌍수로 환영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학교설립 관계자는 학교 건립 전 대부도 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설명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 후 대부도에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은 대부도의 미래를 밝게 해줄 소중한 기회인 만큼, 모두가 협력하여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학생 선발에 대한 우려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다문화 학생들과의 교육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다양성과 포용성을 키우는 중요한 과정이다. 경기안산1교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노력들은 대부도 지역사회가 더욱 열린 마음으로 다문화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기안산1교 설립은 대부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발전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의 다양성과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대부도저널

창간
2025년 4월 7일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대표전화 (032)880-9994 팩스 : (032)880-9961
홈페이지 www.daebudojournal.com
E-mail_ dj250407@naver.com
입금계좌 : 신한 131-022-633961(대부도저널주식회사)

회장 양운영 대표이사/발행인 윤성용 편집국장 김태창 광고국장 김선충

등록번호 경기 다50794

구독료 월10,000원 | 1부 3,000원(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문제작에서 관리까지 맡겨주세요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드립니다

모든 수조는 독일 WACKER(바커)사의 아쿠아리움 전용 실리콘을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규현공방 010-4071-2797





대부도펜션타운

365일 예약센터 운영
T. 1588-1934

About

대부도 펜션타운



국내최대, 국내 최초
대부도 대표 풀빌라 펜션단지!

Daebudo Pension Town

대표 양 운영